

당신의 인생은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다

인생은 늘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때로는 멈춰 선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삶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무엇을 붙잡을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지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돌아보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 책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때로 흔들리고, 때로 막막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삶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믿는 기준을 세우고,

내 방식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성공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실패가 삶의 결론도 아니다.

삶은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긴 여정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바뀌고, 성장한다.

어쩌면 좋은 인생이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 인생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좋은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타협하며,

반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방향을 찾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반복해 가는 과정이다.

방향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고,

기준은 선택의 원칙이 되어 주며,

반복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이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보았고,
지금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떠올려 보았다면
이 책의 역할은 이미 충분하다.

부디 이 책이 당신의 삶에 거창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분명한 방향과 조금 더 단단한 기준,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용기를 남겨주었기를 바란다.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 당신은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대청봉 아래 인생공방:설악에서

청원 엄 준 하